

‘청년과 함께 크는 도시’... 광주 자치구, 지원책 눈길

어학·컨설팅...취·창업 역량 강화 주거 공간 등 안정적 정착 도와 청년 커뮤니티 공간 무료 제공

광주지역 기초단체가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취·창업 지원부터 주거 공간 마련 등 청년 지원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처럼 자치구가 청년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함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순유출 인구는 약 9000명으로 이 중 6387명이 청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주 5개 자치구의 획기적인 정책들을 살펴봤다.

● 동구, 주거부터 소모임까지 '지원'

청년 비율이 28.13%로 광주 자치구 중에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동구는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 생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동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과 예비 창업가 등을 위해 참여와 소통, 주거와 복지,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청년 문화 등 5대 전략과제로 구성된 체계적인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구는 2020년 계림동을 시작으로 총장로 4·5가 일원 빈집·점포를 활용하는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통해 매

년 예비 청년 창업자 10팀을 선발해 초기 창업자금은 물론 전문가 1:1 멘토링, 경영 컨설팅, 심화 교육을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도 한몫하고 있다. 지역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과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와 협업체 1인 가구 청년에게 중개수수료를 최대 20% 감면해 주는 혜택이다.

지난해 11월 정식 개관한 동구 청년센터인 ‘청년아지트(D.GIT)’ 역시 학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주목받는 공간이다. 네이비 플레이스 예약을 통해 청년들이 손쉽게 공간을 예약할 수 있어 청년들이 자유롭게 스터디,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돕고 있다.

● 서구, ‘명장 성공 스쿨’ 진행

광주 서구는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에 이어 사회초년생을 위한 자아 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서구형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달 28일 양동에 지역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인 ‘서구 청년센터 플러스’를 개관했다. 이곳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활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2030 서구 청년 PI(Personal Identity) 스쿨’이 메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아 발견 및

강화 △취업 역량 강화 △취미 활동 등을 제공하고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호남 유일 대한민국 명장 2인을 보유한 서구는 청년 창업가를 위한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서구는 대한민국 명장인 마옥천 대표(제과·제빵 분야 ㈜베비에르), 안유성 대표(조리분야 가매일식)와 손잡고 ‘명장 성공 스쿨’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까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광주 대표 음식 요리경연대회’, ‘서구 골목 맛집’ 참여 등과 연계해 청년 창업가들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남구,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광주 남구는 관내 청년 취업 준비생을 위한 사업과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 4월 청년 취업 준비생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했고, 올해 연말까지 제공하는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사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김병내 남구청장이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관내 19~45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의 자격증 취득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횟수를 1인당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지원할 수

있는 어학 시험 종류를 기존 8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이어 관내 청년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독려하고 구직활동 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된 면접용 정장 대여 서비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주말과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북구, 창업공간 19곳 마련

북구는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를 목표로 올해 청년미래정책관을 신설해 지역 청년 지원 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각화(산업디자인·뷰티 공예)·두암(ICT)·오치(공예)동에 분야별 청년창업 공간 총 19곳을 마련, 청년 기업과 예비 사업가들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청춘이랑’과 ‘청년어울림’,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 등 청년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청년 활동 지원도 눈에 띈다.

북구는 청년센터에서 맞춤형 취·창업 지원(로컬 디지털 메뉴 개발 컨설팅, 취·창업·이미지 컨설팅, 직무수행 능력특강, 디지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청년힐링공작소·청년상담 마음톡톡)을 무료로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청년센터 내 △소모임실 △미디어실 △북카페 △세미나실 등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무료 대관해 청년들의 활동을

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주거 정책도 빠지지 않는다. 북구는 청년 임대주택·주거급여 분리 지급·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고 있다.

● 광산구, 취·창업 역량 강화

광산구는 청년이 마을과 함께 삶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광산구 청년일자리거점 ‘청청 플랫폼’을 통해 무료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 일자리 키오스크 및 AI 모의 면접, PC 검색·출력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커뮤니티 및 스터디 공간과 북 카페를 운영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청·고·래(청년과 함께 고민하는 래(내)일)’를 통해 월별 취·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먼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기업(공사·공단) 직무특강, NCS 문제 풀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면접 메이 크업 특강, 이력서 무료 촬영 ‘사진드림’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 역량 강화 분야로는 1:1 맞춤형 창업 멘토링 상담 서비스, 사업 아이템 구상·사업계획서 작성법 교육,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을 추진하며 청년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은지·정성아·박찬 기자·윤준명 기자

“도깨비 여름 비어 축제서 무더위 날리자”

동구 총장로서 26~27일 이틀간

광주 총장로서 무더운 날씨를 날려 버릴 시원함을 선사할 맥주 축제가 열린다.

광주 동구는 26~27일 총장로5가 일원에서 ‘도깨비 여름 비어(beer) 축제×청년 상생 마켓’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총장상인회와 상가 상인들이 협업체 준비한 이번 행사는 복고풍(Retro·레트로) 포장마차 콘셉트로 총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축제 기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가족·연인·친구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친근한

아시아 분위기를 연출, 맥주 판매 부스와 푸드트럭, 먹거리부스 등을 운영한다.

각종 안주와 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으로 버스킹과 EDM 디제잉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준비했다.

총장로 4~5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들이 직접 플라마켓을 꾸려 추진하는 ‘총장 청년 상생 마켓’도 함께 열려 트렌디한 잡화와 소품, 향수 등 제품을 선보인 다.

임택 동구청장은 “무더운 여름 총장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여유를 선사할 행사가 됐으면 한다”며 “총장로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광주·전남 연일 폭염 특보... 26~28일 강한 소나기

대기불안정...예상강수량 30~80mm “태풍 ‘개미’ 영향 예보 변동성 커”

광주·전남에서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낮에는 찜통더위, 밤에는 열대야가 관측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6~28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6~27일 광주와 전남은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26일~27일 광주·전남 예상 강수량은 30~80mm다.

28일 오후에도 광주와 전남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26~28일 아침 기온은 25~27도, 낮 기

온은 30~35도로 평년(최저기온 23~25도, 최고기온 29~3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또한 이 기간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서 파도가 1~3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예보기간 동안 제3호 태풍 ‘개미(GAEMI)’의 강도와 이동경로 변화에 따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와 정체전선의 위치가 달라져, 비가 내리는 지역과 시점 등 예보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예보 변동성이 크겠으니, 실시간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길 바란다”며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찬 기자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들 선전 기원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25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물감을 이용해 만든 오륜기를 들고 올림픽 대표팀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 북구 “유니콘이 되려는 꿈있는 청년 창업가 모이세요”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8월 28일~29일 북구청 회의실서 14일까지 3개 분야 팀 단위 접수

광주 북구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창업 유망동 발굴에 나선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8월28일부터 이틀간 광주 북구 융복합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청장배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북구청장배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 청년들을 발굴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북구가 지난해 도입한 청년정책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오는 8월28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우수공예 기업 체험활동, 지식재산권 특강, 아이디어 멘토링, 예산·본선 심사, 시상식, 공연, 부대행사 등이 2일 동안 진행된다.

창업 아이디어 모집 분야는 △기술 혁신 △문화콘텐츠 △지역문제 해결 등 3개 분야로 광주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청년(15세~39세)이면 누구나 팀(2명~5명)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북구는 접수된 제안 아이디어를 1차 서류심사, 2차 예선 심사, 3차 본선 심사 후 총 9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 등에 따라 △대상 1개(300만원) △최우수상 1개(200만원) △우수상 3개(각 100만원) △장려상 4개

(각 50만원)로 나눠 시상할 예정이다.

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북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이메일(cmo1224@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청년미래정책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첨단기술과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융합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청년창업 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